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토론회 제3회 개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과 과제 모색"

- 이재영 원장, “산재 사망 사고 극복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없이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지속가능한 성장’은 대전환의 전제이자 기초”
- ‘지속가능한성장’의 핵심인 ‘산업안전’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구체적 논의
- 양대노총, 학계, 시민사회 등 노동 현장 목소리 청취, 입법 과제 도출 주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의회의실(306호)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산업안전대책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등 양대 노총이 참석하고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성장의 전제 ... ‘산재사망률 1위’, ‘성별 임금격차 1위’ 오명 벗어나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성장률은 반등했지만 지금까지의 성장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산재사망률 OECD 1위, 성별 임금격차 1위라는 오명을 벗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마련하고자 하는 새로운 성장 공식의 기본이자 기초”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 증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하는사람기본법」,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까지 폭 넓게 논의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는 산업안전 대책 강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되었다. 발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과 ‘반노동’의 경쟁이었다면, 이재명정부 노동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노동존중의 양립을 표방하며, 노동정책의 궁극적 방향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분석해 산업안전을 위한 ①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② 책임·제재·감독 강화, ③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확충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① 공정한 보상 확립 ②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등의 조치가 담겼음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정책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산업안전, 임금체불 해소, 포괄임금 폐지, 노동자 건강 안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ILO협약 이행 문제를 22대 국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 부장은 새정부가 노동계와 약속했던 정년연장과 같은 문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노동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효성 강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야간노동 축소 등 실질적,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산업안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3권 보장,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입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차별 없는 일터 만들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기존의 산업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첨단 안전 기술을 노동 현장의 필요와 결합시키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구축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국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선거와 향후 노동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

연속토론회 3

대한민국 대전환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1월 27일(화) 14시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306호)

좌 장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발 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토 론 김종진 (사)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정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본부 부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1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1월 20일(화) 15:00

2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1월 22일(목) 14:00

4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1월 29일(목) 14:00

5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2월 5일(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306호)

